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xx	학번	2019xxx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3. 7. 30(일)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클락 공항에 내려 1시간 정도 차로 이동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골입니다. 그나마 라비스타 리조트(숙소) 도보 10분 거리에 비스타몰(대형마트)가 있어서 생필품 구입 하기엔 편리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트라이시클을 타고 나가야 했습니다. 2개의 수영장이 딸려있고 프라이빗 풀은 9시까지 이용 가능, 퍼블릭 풀은 5시까지 이용 가능하여 주말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제보는 다른 학교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었습니다. 다만 타학교에서 매일 술을 먹고 자리를 차지하여 많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p>
수업	<p>1일 차에 레벨 테스트를 본 뒤 그룹 수업 배정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정규 레귤러 클래스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하루에 그룹 수업은 4번, 1:1 수업은 3번 진행됩니다. 공부하는 책은 5권으로 문법 기초, 리딩, 독해 등을 배웠습니다.</p> <p>생각했던 것보다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 방식이라 아쉬웠습니다. 첫째로, 너무 많은 액티비티 활동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주 화, 수, 금에는 액티비티 활동이 있어 정규수업을 진행하는 날이 적어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된 수업은 토익 스피킹이며 하루에 2번만 구성된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른 책들은 중학생 기초 수준이었으며 특히 멀티미디어 책은 전혀 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멀티미디어 수업은 왜 정규 클래스에 배정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책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디오를 들어야만 수업을 할 수 있는 책들이 많아서 토익 스피킹 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버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수를 줄여, 한 가지에 집중하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p> <p>둘째로, 선생님 실력 편차입니다. 초반에 배정 후 3일 동안 선생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아쉬웠던 점은 1:1 클래스 선생님은</p>

	<p>초임이 많아 실력 편차가 심했습니다. 멀티 미디어 선생님의 경우는 아프셔서 빠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선생님은 열의가 넘치셨고 저 역시 단어만 말하던 실력에서 쉬운 문장으로 말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p> <p>마지막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음 칸막이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조명은 노랑고 책상이 너무 작아 책을 놓고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옆 칸의 수업 소리가 들립니다. 저에게는 리딩 책의 영어 단어가 어려워 밤마다 예습을 하곤 했는데 따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람실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p>
Activity	<p>매주 화(오후), 수(오후), 금요일, 일요일 마다 액티비티를 진행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mmer festival 오전에는 부스형식으로 운영되었고 종이접기, 다트, 사격, 풍선 맞추기 등 청소년 페스티벌과 흡사했습니다. 오후에는 장기자랑이 진행되었고 강요 아닌 강요가 있어 모두가 나가 춤을 춰야 했습니다. 내성적인 성향은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금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 sport day 타 학교와 함께 그룹으로 진행했습니다. 땡벌에서 피구, 배구, 배드민턴 등을 진행하여 많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처음 보는 타 학교의 학생과 단합이 되지 않아 심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학교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단합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MV 제작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장기자랑, 스포츠 데이는 상금이 있지만, 뮤비는 전혀 없습니다. 시골이라 필리핀 기념품을 사기 어려운데 상금보다는 특별한 기념품 위주로 준비해 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타 대학교 학생과의 교류 BPCU 대학교에서 필리핀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은 복불복 같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웠고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 sinagtal 리조트에서 수영도 하고 줌라인, 하늘 그네 등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레스토랑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식탁 위에도 개미가 정말 많으며, 짐 보관할 곳이 따로 없습니다. 개미가 너무 많아서 꼭 벌레 퇴치제와 수영복 챙겨가세요! - subic bay 요트 투어 벤을 타고 이동하는데 너무 덥고 멀미가 심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트를 타니 더 심했습니다. subic bay는 자석, 열쇠고리와 같은 필리핀 기념품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즐거웠지만, 날씨와 멀미로 힘들었습니다. 스노쿨링을 할 수 있으니 수영복을 챙겨가세요.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첫 주에는 상상도 못 할 만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주말부터는 비가 안왔고 기대하던 맑은 필리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p> <p>그래서인지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마지막 주차부터 몸이 안 좋더니, 난생 처음 장염에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4~5명 정도 장염에 걸렸기에 꼭 물을 사드시는 걸 추천합니다.</p>
안전	<p>리조트를 나갈 때마다 경비원분들이 트라이시클을 잡아주시고 길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친절하시고 삼촌 같아요!</p>
숙소	<p>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첫날에 새벽 4시에 도착해서 비몽사몽으로 숙소에 도착했는데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개미가 문을 갇아먹고 들어오는 것은 물론, 도마뱀이 정말 많습니다. 흠키파 2개 이상, 벌레 퇴치제 2개 이상, 버물린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기숙사 옆에 건물 공사 중인데 아침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공사장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제보 앞에 판자로 연결해 놓은 곳에 다리가 빠져 넘어졌습니다. 어두운 길이 많지만 가로등이 많이 없습니다. 이 외에 청소와 빨래를 자주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프라이빗 풀에서 보이는 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꼭 모든 별을 끄고 보세요!</p>
식사	<p>기숙사식당(<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후기를 보고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기숙사식당이 더 맛있었습니다. 다만 충분히 먹을 양이 풍부하지 않았습다. 이모님들도 모두 친절하십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트라이시클밖에 없습니다. 우버는 잡히지 않으며 주로 퍼블릭 마켓, SM물 등을 이용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81,590	출국 전 사전 납부
	600,000	환전 후 식비, 기념품 구매
합계		1,281,590

5. 출국 전 준비사항

1. 충분한 상비약과 열패치

본인이 몸이 약하다면 충분한 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감기 약 2통은 먹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장염으로 열도 나고 지사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서 나눠줬습니다. 열패치도 있으면 야외 활동 시 도움이 됩니다.

2. 모기퇴치제 홈키파, 버물린

생각 이상으로 벌레가 많습니다. 룸메랑 1개씩 나눠서 챙겨오면 좋을 것 같아요. 홈키파 하나로 부족해서 하나 더 샀습니다.

3. 비싼 옷 금지 X

건조기에 돌려서 옷이 줄어들거나 해질 수 있으니 비싼 옷은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타월은 버리고 간다는 생각으로 버릴 수건으로 챙겨오면 좋을 것 같아요.

4. 실내화나 슬리퍼

외국은 신발을 벗는 문화가 없어서 방안이랑 욕실에서 신을 수 있는 실내화나 욕실화 챙겨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전환기와 멀티탭

6. 얇은 언더웨어

밤에 에어컨을 틀고 자야 해서(습해요) 따듯한 옷이 있으면 좋습니다. 수업시에도 에어컨 바람이 추워서 걸칠 수 있는 셔츠나 가디건 챙겨주세요!

7. 정이 많다면 편지지와 선물 준비 (다꾸 스티커)

마지막에는 모든 선생님과 정이 들어 떠나기 아쉬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정말 정말 예쁜 편지지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이소에서 사갈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선생님 5~6명 정도 드릴 거로 생각하고 편지지, 스티커, 마스크 테이프 등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과자나, 한국어 스티커 등 기념품도 좋을 것 같아요!

* 두루마리 휴지는 1회만 제공되고 사야 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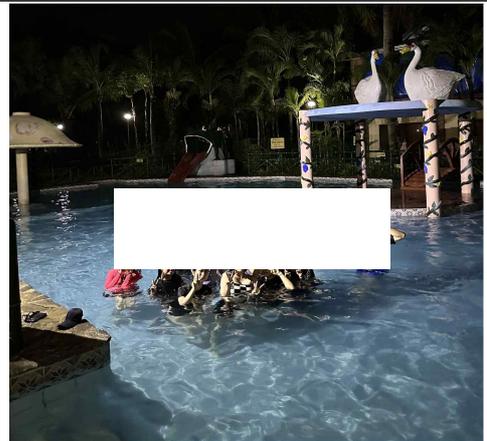
저는 영어를 남들보다 늦게 공부하기 시작했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막상 다녀오고 나서는 영어 실력을 향상한다기보다는 세상을 경험한다는 느낌이 강했던 어학연수였습니다. 단어와 단어로 말하던 스피킹 실력이 간단한 문장 정도 만들 수 있는 실력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보카와 문장 공부 등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토익 스피킹 수업이 가장 유익했고 토익보다 스피킹이 더 재미있고 잘 맞는다는 것을 연수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9월부터는 토익 스피킹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엑티비티 활동에 치중한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문화를 알아간다는 것이 의미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남들보다 늦게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지만 이 어학연수가 영어를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준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부 외에 다양한 활동이 많아 저학년 친구들에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바탄에서의 생활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리더의 역할이 뛰어나 단합이 잘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사람이 신기해서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프라이빗 풀에서 버디 선생님과 함께 수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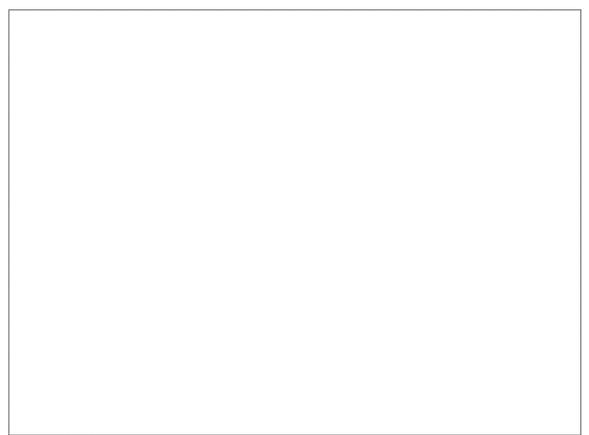
수빅 베이에서 바라본 노을



엄청 더웠던 스포츠 데이



교통 수단인 트라이시클은 3명까지 탈 수 있어요!



프라이빗 풀에서 바라본 필리핀 별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황xx	학번	2020xxx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3. 7. 30(일)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발랑가 바탄</p> <p>규모 및 시설: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은 아니었고, 대학 주변에 있는 센터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 듣는 곳이 살짝 연회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p>
수업	<p>가자마자 레벨 테스트를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은 9시부터 12시까지 1:1 or 그룹 수업을 한 후 점심을 먹고 13시부터 17시까지 1:1 or 그룹 수업을 했습니다.</p> <p>1:1 수업: interchange book, reading book으로 수업을 나갔고 free talking도 같이 하면서 수업을 해서 지루하진 않았습니다.</p> <p>그룹수업으로는 토익스피킹, let's talk, MMC 수업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재밌었습니다. (특히, MMC 수업은 뮤직 비디오풀 만드는 수업으로, 졸업식 날 각 그룹 뮤비로 등수를 매깁니다. 처음에 조금 귀찮았지만 만들면 또 재밌습니다.)</p> <p>그리고 개인별로 1:1 선생님은 다 달랐지만, 워낙 선생님들끼리도 사이가 다 좋은 편이라 제 담당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친해진 선생님도 많았습니다. (여기 센터 선생님들이 다 활기차시고 열정 넘치세요.)</p> <p>또 좋았던 점은 선생님들도 저희와 같은 숙소에 지내고 계셔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communication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는 총 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p> <p>기억에 남는 활동들을 꼽아 써보자면,</p>

	<p>1. 필리핀 문화 체험: 선생님들이 부스를 운영하시고, 저희가 부스를 방문해 필리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부스는 필리핀 사탕 만들기, shooting, photo booth 등등이 있었어요.</p> <p>2. Sinagtala Resort: 센터와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van 타고 가서 금방 갔어요. 뷰가 정말 너무 예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었습니다.</p> <p>3. 체육대회: 타 대학 학생들과 섞여져서 그룹지어 활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p> <p>4. 요트투어: 수빅에 가서 요트를 탔는데 저는 배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고생했어요. 그래서 멀미하시는 분들은 꼭 멀미약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p> <p>*그 이외에도 다른 activity가 있었습니다!</p> <p>다만, 필리핀 햇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선크림, 선글라스 등 햇빛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크림도 액체형, 고체형 챙기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우기 시즌에 가서 우기 시즌에 가시는 분들은 우산 필수이지만 양산기능도 있는 우산 챙기시면 더욱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팁인데,,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다 보니까 검정 옷 같은 경우 옷에 선크림이 묻어서 선크림 전용 지우는 물티슈도 챙기시면 좋을 거 같아요 :))</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저희가 필리핀에 갔을 당시 필리핀은 우기 시즌이라 첫 주에는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자유롭게 어딜 나가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부터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괜찮았습니다!
안전	<p>현지 안전 상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p> <p>여기 센터에서 어딜 나가려면 무조건 트라이시클을 타야 하는데, 트라이시클 잡는 것도 센터 앞에 계시는 가드분들이 다 도와주시고 잡아주십니다. 저희가 돌아올 때도 저희 얼굴 한명 한명 다 체크하시고, 어디에서 오는지도 물어봐주시고 정말 안전했어요. 또 센터 건너편에 있는 물에서 오고 갈 때도 같이 길 건너주셨습니다.</p> <p>저희가 개인적으로 돌아다닐 땐 필리핀 사람들이 워낙 한국인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레스토랑을 가던, 카페를 가던, 어딜 가던 다 친절하게 맞이해주시고 위험했던 상황은 없었습니다. mall에는 항상 security guard가 있</p>

	<p>어서 한국보다 안전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소지품 주의하시고, 경계하셔야 합니다!)</p> <p>특히, 트라이시클 가격 nego하는 부분에서 가끔가다 이상한 사람이 있긴 한데 유연하게 nego하고 잘 넘어가시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p>
숙소	<p>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숙소 시설에 관하여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화장실이 많이 열악합니다.. 샤워기 필터 꼭 챙기시고 손 닦을 비누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휴지가 한국 휴지보다 얇아서 빨리 쓰게 되고, 숙소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청소해주시는데 청소해주시는 분이 남자분이라 뭔가 마음이 확 놓이진 않았습니니다.</p>
식사	<p>기숙사식당(<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식사는 아침, 점심은 무조건 기숙사 식당 cafeteria에서 먹어야 하고 저녁은 밖에 나가서 먹어도 됩니다. 전날 buddy teacher가 단톡방에 다음 날 아침, 점심, 저녁 메뉴판을 올려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엔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다 같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도 있었고, 저녁을 먹고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cafeteria에서 먹을 때도 있었고, 나가서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p> <p>*식사 관련해서 저희학교 학생들도 그랬고, 타 대학교 학생들도 물갈이를 했었습니다.. 물론 건강한 학생도 있었지만 가능하면 얼음 조심하시고 mall에서만 파는 식당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local food는 드시지 마세요.. 물갈이 관련 필수 약을 넉넉히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숙소에서 센터까지 가는 시간은 1분도 안 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 트라이시클을 타고 나가야 하는데</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81,590	출국 전 사전 납부
교통비	15,000	트라이시클 비용
식비	175,000	카페, 아이스크림, 밥 등등
선물비	50,000	마그넷, 과자 등등
기타	60,000	마사지 비용
합계	981,59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3주가 짧은 시간이기도 하면서 긴 시간이라고 느끼실텐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약을 종류별로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약, 선크림, 우산 챙기시고 센터 내부가 에어컨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긴팔 긴바지도 무조건 챙기시길 바랍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필리핀에서 보내는 3주는 저에게 굉장히 짧았습니다ㅠㅠ 가기 전, 가서 잘 지낼 수 있을 지 등등 여러모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걱정할 틈 없이 하루하루가 바빠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리핀에서 토익 스피킹을 처음 공부해봤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루틴(?) 같은 것을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향후 제가 한국에서 토익 스피킹을 공부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모든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서 좋았고, 센터 내 모든 선생님들이 매사에 열정 열정 열정적이라 그분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또한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갔던 분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귀중한 추억 쌓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요트투어



Sinagtala Resort



sm mall
llaollao 요거트 아이스크림



할로할로 아이스크림



Summer festival



City hall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한xx	학번	2020xxx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3. 7. 30(일)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발랑가 시티에서 약 10분 떨어진 곳에 La vista라는 생활공간이 있습니다. 두 개의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규모는 컸습니다. 다만, 전체 규모 중 반은 공용 수영장, 반은 생활 시설 및 공부 시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공부 시설, 생활 시설, 여가 시설이 다 분리되어 있어 계획된 학습 시간에 집중하기 수월했습니다. La vista 안에서의 생활을 즐기기에는 좋은 환경이었지만, 시티로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트라이시클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는 위치였습니다.</p>
수업	<p>첫 날 레벨 테스트를 통해 결정된 그룹 수업, 1:1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이 진행되었고, 한 수업 당 50분씩 진행했습니다. 수업 후 10분 쉬는 시간을 가져 다음 수업을 준비할 시간 또한 충분했습니다.</p> <p>그룹 수업에서는 주로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였습니다. 또, 활동을 위한 뮤직비디오 제작과 그룹별 대화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간단한 대화를 하며 일상 회화 또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p> <p>1:1 수업은 총 3번으로 리딩과 회화 수업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룹 수업과 마찬가지로 수업 시작 전, 대화를 통해 회화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p> <p>수업을 통해 선생님들과 유대감을 쌓아, 시간이 거듭날수록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p>
Activity	<p>매주 금요일은 Friday Activity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파견 온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알아가는 시간, 필리핀 축제 체험 및 장기자랑, 전통 물건 만들기, 체육대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생님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며, 필리핀 문화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기회를 갖는 시간이었습니다.</p> <p>매주 일요일 또한 Activity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말인 만큼 차로 이동해야 갈 수 있는 곳에 가, 체험을 즐겼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간 곳은 Sinagtala와 Subic이었습니다. 하루 시간을 내어 다녀올 만큼 발랑가 안에서는 할 수 없었던 체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밖에서 끼니를 해결해</p>

	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였고, 가는 곳마다 수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분의 옷도 필요했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필리핀의 8월은 태풍 영향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므로 접이식 우산을 꼭 챙겨야 합니다. 비가 그치면 날씨가 더워지므로 선크림과 쿨패치를 챙기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온도는 한국과 비슷한 것 같지만 해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열사병에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	트라이시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치안, 안전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여, 오히려 우호적인 태도와 호의를 보였습니다.
숙소	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Molave 기숙사를 사용했는데, 방마다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어 습하거나 덥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하고 가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열악한 숙소 시설에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적응이 되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베드버그 약과 실내용 슬리퍼를 챙겨 오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식사	기숙사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한식 위주로 식사가 제공되는데, 조리사님들 솜씨가 굉장히 좋으셔서 외식하는 것보다 만족도 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식과 함께 필리핀 음식도 제공됐었는데,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교통	항상 트라이시클을 이용했습니다. SM mall까지 80페소, city hall까지 60페소 정도로 생각해둔 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Weekend Activity를 위해 사용한 차량은 시설에서 지원해준 밴을 사용하였습니다. 14명이 전부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지만, 뒷좌석은 좁고 더워 장기간 이동 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81,590	출국 전 사전 납부
교통비	30,000	트라이시클

외식 값	60,000	카페 등
기념품	50,000	과자 등
합계	35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선크림과 모기 퇴치제는 꼭 챙겨야 하며, 해가 많이 강하기 때문에 더위 먹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물을 최대한 자주 마시는 것이 좋지만, 물을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주는 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되고, 웬만하면 사서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 때는 최대한 가볍게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La vista 바로 앞, 도보 3분 거리에 대형 마트가 있으므로 생필품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짐만 챙겨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La vista는 수업 공간 이외에는 딱히 개인 공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와서 따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책을 챙겨오지 마시고 나눠주는 교재를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Weekend Activity 시 장기간 이동으로 인해 멀미를 할 수 있으니 멀미약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는 어색한 사람들과 환경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첫 수업 이후 활달한 선생님들 덕분에 환경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서 춤추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흥이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많은 것을 시도해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짧은 3주 동안 잊지 못할 많은 추억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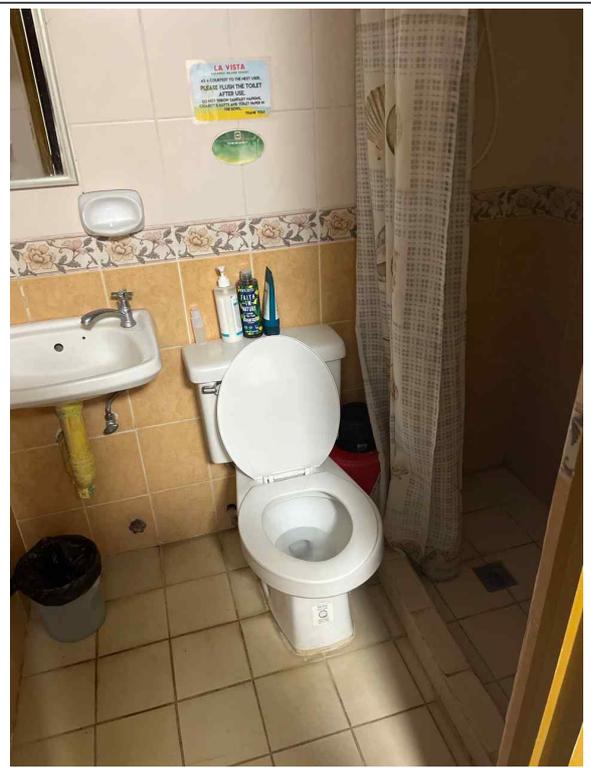
매번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재미도 없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어학연수를 와서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혼자 노력했던 것보다 단기 어학연수에서의 경험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운 나라의 환경만 몸과 맞았다면, 3주 이상 필리핀에 머물며 영어를 배우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영어는 직접 대화를 해야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어 실력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 화상 영어를 통해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할 것입니다. 또, 기초 실력을 쌓고 단어 공부를 하며 영어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Molave 기숙사 내부



Molave 기숙사 화장실



La vista 기숙사 앞 (수영장)



Sinagtala 일부 (수영장 중 하나)



Subic bey 해변



city hall 풍경 일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xx	학번	2020xxx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3. 7. 30(일)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발랑가에 위치한 라비스타에서 3주 동안 보냈습니다! 공부하는 곳이 강의실처럼 방 형태가 아니라 칸막이 형태여서 처음에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수업 듣는 곳이 기숙사랑 가까워서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에어컨 잘 틀어줘서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하시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숙소 내 수영장 2개 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 느끼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그 부분 바로 수용해주셔서 좋았습니다. • 선생님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 과제 : 제 선생님들은 과제를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과제가 있는지 여쭙보니 3주가 짧으니까 필리핀 생활을 즐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table border="1"> <tr> <td>1교시 Reading(1:1)</td> <td>읽고 문제 풀고, 추가로 선생님들이랑 해당 챕터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토익 파트7같은 문제 같다고 생각했고, 그냥 문제를 맞히기에만 급급해서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좋았지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td> </tr> <tr> <td>2교시 토익스피킹(GC)</td> <td>레벨테스트 결과로 나뉜 그룹으로 함께 토스를 배웁니다.</td> </tr> </table>	1교시 Reading(1:1)	읽고 문제 풀고, 추가로 선생님들이랑 해당 챕터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토익 파트7같은 문제 같다고 생각했고, 그냥 문제를 맞히기에만 급급해서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좋았지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교시 토익스피킹(GC)	레벨테스트 결과로 나뉜 그룹으로 함께 토스를 배웁니다.
1교시 Reading(1:1)	읽고 문제 풀고, 추가로 선생님들이랑 해당 챕터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토익 파트7같은 문제 같다고 생각했고, 그냥 문제를 맞히기에만 급급해서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좋았지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교시 토익스피킹(GC)	레벨테스트 결과로 나뉜 그룹으로 함께 토스를 배웁니다.				

	3교시 Interchange(1:1)	문법,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었던 회화 수업입니다.
	4교시 토익스피킹(GC)	-
	5교시 Reading(1:1)	-
	6교시 Let's talk(GC)	다양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는 수업입니다. (영화 등등)
	7교시 MMC(GC)	뮤직비디오 or 상업광고 등 짧은 영상 만드는 시간입니다. 신경 쓸 게 생겨서 귀찮습니다. 그렇지만 완성된 작품 보면 약간 뿌듯합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 비용 등	
	내부	
	Getting to know	순천향대 학생들과 함께 간단한 게임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Summer festival	선생님들이 준비해주신 부스 체험 + 장기자랑 시간입니다. (추가비용X)
	Broom making	빗자루 만드는 시간입니다(기념품). 큰 사이즈 + 작은 사이즈 한 개씩 만드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추가비용X)
	Sport day	같이 연수 중인 타 대학 학생들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외부	
	BPSU	대학교 가서 현지 필리핀 대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Sinagtala	짚라인, 스카이스윙 등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합니다.
	Yacht tour & SUBIC tour	요트 타고 풍경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쁜 옷 입고 가세요) (수빅에서 키링, 마그넷 살 수 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8월 [우기] 첫 주에 비가 진짜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 밤에도 비가 엄청 내려서 그 소리에 자다가 깰 정도였습니다. 번개도 많이 쳐서 예민한 분들은 귀마개, 안대 챙겨가시는 걸 추천합니다.</p>

	<p>(우산은 들고 다니기 편하게 가볍고 작은 걸로 챙겨가세요!)</p> <p>2주 차부터 비가 안 내리기 시작해서 맑은 날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 대신 정말 덥고 뜨거우니까 선크림 꼭 챙기세요!</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사전에 들은 그대로 안전하게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호의적으로 해주셔서 놀랐습니다.</p> <p>기숙사에서 밖으로 나갈 때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ID카드 제출하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혼자서 다니지 않고, 최소 2명 이상 움직이려고 했습니다.</p>				
숙소	<p>기숙사(V)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열악하지만 잘 사용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사용했던 방은 에어컨 잘 나왔습니다 - 샤워기, 변기 수압 엄청 약합니다. - 방에서 도마뱀과 벌레 나옵니다. <p>(문단속 잘해도 다 들어옵니다. 모기기피제, 모기약, 모기향 필수입니다.)</p>				
식사	<p>기숙사식당(V) 홈스테이 () 외부식당 (V)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기숙사 식당</td> <td>일단 한식이 주로 나와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먹는 맛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정말 좋았습니다.</td> </tr> <tr> <td>외부식당</td> <td>필리핀은 정말 치킨 + 밥의 조합을 좋아하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추천받은 식당 위주로 가봤는데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물은 안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td> </tr> </table>	기숙사 식당	일단 한식이 주로 나와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먹는 맛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외부식당	필리핀은 정말 치킨 + 밥의 조합을 좋아하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추천받은 식당 위주로 가봤는데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물은 안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기숙사 식당	일단 한식이 주로 나와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먹는 맛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외부식당	필리핀은 정말 치킨 + 밥의 조합을 좋아하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추천받은 식당 위주로 가봤는데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물은 안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트라이시클]</p> <p>길바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필리핀 교통수단입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시내로 이동할 때, 항상 트라이시클만 탔습니다. 매번 흥정을 해야 하는 게 약간 번거로웠지만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교통수단이어서 신기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81,590	출국 전 사전 납부
달러 환전	642,320원 (500\$)	쌤쌤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3주에 400달러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마사지 (타이마사지 1회 기준 + 팁50)	500페소 (약11,730원)	마사지샵에서만 팁을 냈습니다.
시나그탈라 액티비티	500페소 (약11,730원)	[스카이스윙 + 짚라인]
기념품 (마그넷, 키링 등)	480페소 (약11,260원)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p> <p>- 룸메이트와 사전 연락 (공용 물품 정하기) 샴푸, 린스, 바디워시, 고데기, 드라이기, 모기향 등등 사전에 얘기해서 첫날 시티투어 때 같이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짐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현지 물가가 저렴하고 있을 거 다 있습니다)</p> <p>- 커피 커피 꼭 마셔야 하는 분들은 꼭 가져오세요! 수업 끝날 때까지 밖에 나가지 못해서 커피 못 마시면 수업 시간에 졸려서 힘들었습니다. (현지 마트에서도 살 순 있습니다)</p> <p>- 상비약, 포카리스웨트 분말 본인에게 잘 맞는 약은 무조건 챙겨오세요!! (지사제, 감기약, 소화제 등) 다들 와서 한 번씩은 꼭 아프더라고요. (감기, 물갈이 등) 물갈이 때문에 몸에 수분이 없어서 다들 포카리스웨트 사다가 마셨는데 아픈데 사려면 밖에 나가야 하니까 번거로우면 미리 분말 챙겨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합니다.</p> <p>- 빨래 & 청소 서비스 2일인가 3일에 한 번 빨래 + 청소 해주십니다. 건조기 사용해서 바싹 말라서 돌아오니까 비싼 옷은 안 가져가는 게 좋아요</p>
--

그리고 빨래가 당일에 바로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분 옷 남겨두고 빨래 맡겨야 합니다!

+ 옷, 수건도 많이 챙겨가지 마세요. 저는 수건 5개 가져가서 다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 수영복

숙소 내 수영장은 일상복 입어도 들어갈 수 있지만,
시나그탈라 리조트 내의 수영장은 수영복 입어야 입장할 수 있으니
수영복은 반드시 챙겨주세요!

★ 영어 공부

가면 바로바로 듣고 말해야 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정말 아무렇게나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좀 하고 갔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회화 공부 많이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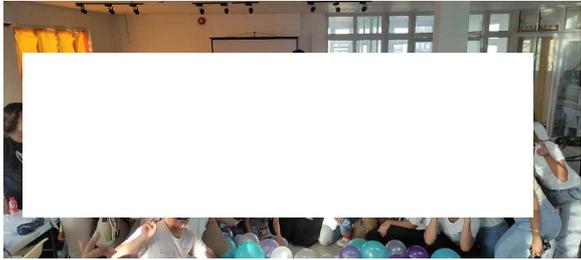
우선 영어를 정말 못하는 사람으로서
하루에 7시간을 영어로 듣고 말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3주가 워낙 짧아서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진 않았지만,
자신감만큼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틀리는 게 무서워서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문법 다 틀려도 그냥 내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짧은 시간에 이 정도면 큰 걸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로 처음 알게 된 친구들, 동생들과 필리핀 생활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각자 다른 매력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좋은 점은 보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점도 언급했지만, 후회는 없던 시간이었고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요트투어</p>	
	
<p>대학교 탐방</p>	<p>Getting to know</p>
	
<p>퍼블릭마켓</p>	<p>Summer festival</p>



고양이



기숙사 내 수영장



체육대회



고기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문xx	학번	2020xxxx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발랑가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3. 7. 30(일)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Public pool은 평일 5시까지라 수업 시간이랑 겹쳐서 주말에 이용할 수 있었고 파도풀, 미끄럼틀도 있고 필리핀 사람들도 놀러 오는데 친해질 수도 있고 재밌어요!</p> <p>Private pool은 저희 학교랑 타대학교 학생들만 쓸 수 있고 저녁 10시 반까지 열어서 저녁밥 먹고 자주 수영했어요.</p> <p>입구에 가드분들이 택시도 잡아주시고 목적지도 체크해주시고 출입도 항상 확인해주셔서 안전했어요.</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첫날에 레벨 테스트보고 레벨에 맞게 4-5명으로 그룹 나눠져요.</p> <p>1:1과 그룹수업 섞어서 하는데 저는 1:1수업에서 문법 공부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하고 친해져서 나중에는 책 진도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고 프리토킹하면서 놀았어요 ㅎㅎ</p> <p>그룹은 3개 수업이었는데 mmc수업은 동영상 과제 만드는 수업이라 조원들이랑 같이 구성 짜고 찍고 편집해요.</p> <p>Let's talk 수업은 책 진도 나가면서 주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스피킹할 수 있었어요. 편하게 말할 수 있었고 재미있었어요.!</p> <p>토익스피킹 수업은 조원들이랑 같이 하니깐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저희 그룹 선생님이 핵심만 잘 가르쳐주셔서 토스는 아예 처음이었는데 따라갈 수 있었던 거 같아요.</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p>1. Sinagtala 리조트 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예쁜 수영장에서 수영도 했어요. 너무 예쁘고 즐거웠습니다.</p> <p>2. 타 대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체육대회 했어요. 재밌었어요!</p>

	3. Subic지역 가서 요트투어하고 자유시간으로 놀았어요. 요트에서 머리 감고 말리기 애매해서 수영 안 할 생각으로 갔는데 넘 하고 싶었어요.. 다시 간다면 그냥 할 거 같아요... 바다도 예쁘고 잘 놀다 왔어요.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더울 줄 알았는데 야외도 생각보다 안 덥고 많이 걸지만 않으면 땀도 안 나요. 저녁에는 선선해서 카페 야외에 앉아있었어요. 실내는 에어컨 풀가동이라 초반에 너무너무 추워서 담요 샀어요.
안전	현지 안전 상황 가끔 돈 달라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시내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가끔 식당이나 카페 야외에 앉아서 먹고 있으면 노숙자가 말거는데 반응 없으면 그냥 가요. 남자랑 같이 다니거나 다수로 다니면 괜찮아요~ 현지 경찰분들 매우 친절합니다.. 택시 안 잡혔었을 때 경찰차도 얻어타았어요.
숙소	기숙사(<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 숙소(<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2인실이었는데 빨래도 건조기 돌려서 뽕송하게 오고 편하게 잘 지냈어요.
식사	기숙사식당(<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식당 (<input checked=""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식당도 잘 나와서 급식도 먹고 또 나가서 외부 음식도 먹은 날도 많았어요. 현지 맛집은 진짜 맛있어요.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교실이랑 기숙사랑 30초였어요. 뛰면 10초예요. 시내는 트라이시클이라는 택시타고 다녔어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81,59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300달러 (약 40만원)	식비, 교통비 등
개인 쇼핑	2000페소 (약 4만5천원)	환전 현금 다 쓰고 마지막에 개인 쇼핑 카드결제
병원비	1688페소 (약 4만원)	카드결제 안 돼서 현금결제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평소 체력이 안 좋으면 한국에서 먹던 영양제품 꼭 챙겨오세요.
 2주차 때 이유 모를 알레르기도 올라와서 현지 피부과 가서 처방 받았는데 한국 오니까
 그냥 나았어요. 음식이나 특별히 알려지는 없었어서 급격한 온도변화나 면역력 저하 같
 다고 하셨어요. 평소에 운동 안 하는데 갑자기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인거 같아요^^..
 한국에서 큰 배량 낚시배도 멀미 안 해서 멀미약 안 챙겼는데 요트는 했었어요..
 차멀미 심하시면 도로랑 차도 한국이랑 다르게 많이 흔들려서 멀미약 챙겨오세요.
 저는 밖에서 외식도 많이 하고 카페도 자주 간 편이고 말린 망고같은 기념품은 안 샀고
 수영복, 나시, 신발같은 쇼핑 한화 7만원 정도 했어요.
 중간에 병원비 지출 없었다면 카드 사용 안 하고 환전해온 300달러 딱 맞게 썼을 것 같
 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귀국해서도 만나고 있어요b
 재밌고 좋은 추억들 쌓았어요!!
 영어 스피킹에 자신감도 많이 얻었고 실력도 향상했습니다.
 토스 시험도 귀국하고 바로 준비하는 계획으로 생각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

	
<p>mmc선생님과 우리 그룹 아이들>.<</p>	<p>친해진 타대학교 친구들과 마지막날 인생네컷</p>



발랑가 시티홀 풍경



프라이빗풀 선셋풍경



밤수영하고 치킨 배달시켜 먹은 날



요트투어